

독자권익위원 칼럼

지역 번영의 팔자는 대학 분발 여부에 달려있다

이건철

독자권익위원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전남광주특별시가 대망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듯했던 충청권과 영남권보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의미는 광주·전남 발전사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60년 이상 소외되고 낙후를 면치 못해 온 광주·전남에 새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광주·전남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러한 초저를 활용해 경제적 고난을 번영으로 바뀌어 할 절호의 기회인 듯하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지난 해부터 지역의 낙후를 면치 못한 주된 이유로 확실한 먹거리산업인 성장동력산업의 부재임을 인식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도 공동으로 글로벌한 'RE100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이자 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태양광·풍력 발전 모두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사·도가 힘을 합쳐 기업 유치와 기술력 제고를 통해 RE100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새로 들

피 했고, 추진 중인 'RE100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RE100 메가시티'의 핵심이면서 국내외 모든 지역이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산업을 서남권의 성장엔진으로 설정하고, 연이어 RE100 산업단지 확충,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실린 지원책을 연달아 선보였다. 이에 힘입어 AI6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국내의 대기업들마저 전남권 입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S를 중심으로 한 국가AI컴퓨팅센터가 솔라시도 입지를 확장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자회사 '베나(VEVA)' 그룹이 솔라시도에 'AI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조원 투자意向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광주전남의 성장엔진 RE100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가 시·공간적으로 빈틈없이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이 한반도 AI·재생에너지산업 거점으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자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비전인 RE100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AI·RE100·재생에너지 관련 R&D와 인력이 필수적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는 AI, RE100 관련 R&D와 인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물론 지역의 우수 대학들이 이를 인식하고, AI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성원 속에 시작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지역발전을 전담하고 있는 이웃 일본 대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지역발전은 우리나라처럼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들이 전담하고 있

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지방대학들도 발전하고, 이에 걸맞는 훌륭한 지역발전시책을 제시하는 선순환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등록비합회인 '2005나고야세계박람회'를 제안하고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한 나고야대학은 일본 국내 6위이자 세계 164위 대학이며, 일본의 남부 도서지역에 입지한 홋카이도대학과 규슈대학은 일본 국내 공동 7위이자 세계 170위 대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다를 없는 홋카이도와 규슈 소재 대학이 일본 국내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양 대학 세계 랭킹이 우리나라 수도권 유수대학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낭 넘길 일이 아닐 성 싶다. 지방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대학의 질적 수준까지 저하되는 우리나라의 악순환적 사례와 확실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요컨대, 광주전남의 번영 여부는 성장동력 프로젝트인 RE100 메가시티 조성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달려 있는데, 36개 지역 소재 대학의 R&D 개발과 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대학 모두가 대학이 지역발전에서 미치는 역할을 재인식하고, 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 관련 R&D와 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2050년대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에 대응하는 대학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대학을 더욱 존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R&D 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인 RE100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지역의 팔자가 번영으로 바뀔 시대를 하루빨리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풍랑을 헤친 역사의 사나이, 최부가 걸어온 길

임병호

목포과학대학교  
관광문화융합과 교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조리 성지마을에서 148일의 위대한 여정, 조선의 대륙 선비 '금남 최부'를 만나고 있다. 역사 속에는 시대를 앞선 인물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대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이방인의 이름에 익숙하지만, 조선의 역사 속에도 그들에 못지않은,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있다. 바로 15세기 조선의 선비, 금남(鎭南) 최부(耑夫) 선생이다. 148일의 표류, 세계를 놀라게 한 '표해록'의 탄생 1488년 1월의 어느날, 제주도에서 추쇄경차관(노비를 잡는 특명관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최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아버지의 상(喪)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는 즉시 고향(전남 나주)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러나 하늘의 장난이었을까, 거센 풍랑을 만난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고, 거친 바다와 사투를 벌인 끝에 중국 절강성에 도착하게 된다. 제주를 출발한 지 14일 만의 일이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최부는 자신을 예적이 아니라 '조선에서 온 선비'라 당당히 소개했고, 처음에는 만지 않았

지만 대화를 이어 갈수록 그의 학식과 태도에 감명받은 명나라 조정과 관원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후 그는 운하를 따라 이동하며 148일간의 긴 여정 끝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생생한 기록을 담아낸 책이 바로 '표해록(漂海錄)'이다. '표해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와 함께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으로 꼽히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목숨을 건 절체절명의 위기, 빛을 발한 조선의 리더십 최부의 여정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는 점에 있다. 거친 풍파와 파도 앞에서 신분도, 권위도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서로를 혐오하고 비하하고 다투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부는 뚜렷한 역사의식과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충(忠)과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았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은 함께 표류하던 일행들에게 거대한 이정표가 되어줬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빛난 그의 리더십 덕분에, 함께 배에 올랐던 일행 43명 전원일 무사히 귀국하는 극적인 인간 승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그가 태어난 '동강면 인조리 성지마을'이다. 서늘 퍼런 권력 앞에서 비겁하

지 않았던 간관(諫官) 최부 선생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대륙 같은 성품이다. 사후 '연신군일기'(1504년 10월 25일 자 출)는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남겼다. "최부는 성품이 공정하고 청렴하며 정직했다. 역사의 유학 경전에 모두 능통해 문장력이 매우 풍부했고, 임금에게 간언하는 신하(간관)가 되서는 자신이 아닌 바를 논치 보느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보복이 두려워 책임을 피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왕에게 직언을 고하는 사간원 사간(정3품 직책) 등의 요직을 지내며, 권력 앞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비겁하게 꺾이지 않고 올바른 도리만을 숨김없이 고백했던 참된 공직자였다. 비록 1504년 연신군 때 갑사사화라는 피바람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울골은 기계만큼은 역사에 선명히 각인됐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념을 저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른다. 500여년 전, 거친 대양의 풍랑 속에서도 조선 선비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43명의 목숨을 구했던 최부, 그리고 서늘 퍼런 군주의 칼날 앞에서 직언을 멈추지 않았던 최부, 그가 남긴 '표해록'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가 마주한 삶의 풍랑을 헤쳐 나갈 진정한 리더십과 울골은 기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사설

일본 TSMC공장 유치 사례 벤치마킹해야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통상 첫 삽을 뜨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린다. 여기에서 완공까지 또 2~3년, 부지 선정·인허가·전력·용수·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하면 7~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2010년 부지 선정 이후 2015년에야 착공했고,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도 2019년 계획 발표 후 2022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착공, 2030년 12월 첫 공장 가동 목표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후보지 선정후 가동까지 7년 9개월이 걸린다. 이는 발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의 TSMC 공장과 대조된다. 세계 1위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021년 10월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2월 완공한 것이다. 당초 건설에만 5년이 예상됐던 공사가 2년여 만에 끝난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허가'의 공이 컸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원룸'을 이력 기업을 도왔다. 부지 매입 단계부터 민관협력 체계를 가동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1중 농지를 4개월만에 단축해 공장유지로 전환했다. 또 송전탑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확장, 철도역 신설, 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과 용수도 확보했다. 그 결과 공장건설계획 발표 3년 2개월만인 2024년 12월부터 제1공장에서는 12~28nm(10억분의 1m) 제품을 한 달에 약 5만 5000장(300mm 웨이퍼 기준)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전남광주특별시에 짓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서구 '천원의 동행' 좋은 나눔·상생 사례

광주 서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 '천원의 동행'이 눈에 띈다. 현재 유통되는 가장 낮은 액면가 지폐인 1000원으로 식사·교통·세탁 등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천원국시'다. 어르신과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게 관내 서창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3월 양동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유덕동 10호점을 개점해 각각 하루 100그릇의 국수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3년 넘게 운영되면서 이젠 단돈 식사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어르신 6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우리밀도 2024년~올해 4월까지 4만8198kg에 나 소비했다. 또 지난해 이용자 수 20만2230명으로 하루 평균 870명이 방문했고 올해도 4월까지 7만7296명이 이용했다. 최근에는 매장 내 '나눔냉장고'를 설치해 주민과 후원자들이 기부한 식재료와 간편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구는 또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의료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천원택시'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중증질환자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 1~4등급 어르신과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까지 확대했다고 한다. 지난 4월까지 총 4992회 운영했고 648명의 중증질환자가 이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전 과정을 1건당 1000원에 지원하는 '천원세탁'과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천원정리수납'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나눔과 상생을 전하는 '천원의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진화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학생 스포츠에 필요한 것은 승리 아닌 품격

임영진

사회부 차장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끄는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다. 승패를 가리는 대회인 동시에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맨십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9일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배재고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응원은 경기의 일부다.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응원이 상대를 조롱하거나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그것

은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더욱이 이번 구호는 경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광주·전남 지역에 큰 상처와 사회적 논란을 남긴 '스타벅스' 이슈를 응원 소재로 끌어와 상대 학교와 지역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응원이 경기 도중 턱아웃에서 공개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심판이 뒤늦게 경고하고 상대팀이 강하게 항의한 뒤에야 선수들이 사과했다. 경기 후 감독과 코치진 역시 "선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 선수들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 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제지했어야 할 사람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철없는 학생들의 장난'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지역사회가 겪은 아픔과 사회적 논란을 회화

화하는 문화가 학생 스포츠 현장까지 스며들었다면 우리 체육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승리를 향한 경쟁이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선수는 실력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인성과 태도, 품격 역시 선수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뛰어난 기량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춘 선수가 결국 오래 사랑받고 기억된다. 스포츠가 교육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임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협회와 학교는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학생 선수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스포츠 윤리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스포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진정한 승자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선수이며, 건강한 스포츠는 실력과 함께 품격을 갖춘 선수들을 통해 완성된다. 이번 논란이 학생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성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